

# “주민과의 약속 이행 위해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

**민선8기 2주년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6연속 기초단체 최우수...신뢰행정  
주요성과 구도심 백운광장 활성화  
송암-국가-지방산단 지역경쟁력 높여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최선을 다한 결과 공약이행 평가에서 6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아 신뢰 행정을 입증했고, 백운광장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었다”며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늘 비상한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장은 22만 주민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공약과 역점사업을 진행해 민선 8기 2년 동안 빠른 변화와 발전 속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선 8기 2주년 최대 성과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6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등을 꼽았다.

김정장은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공약을 이행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었다”며 “전력을 다한 덕에 취임 이후 최우수인 SA

등급을 놓치지 않는 등 성과를 이룬 단체장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장은 민선 8기의 주요성과 중 하나로 구도심인 백운광장의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해 백운광장에 또 하나의 심장을 마련하는 게 목표였다”며 “푸른길 브릿지를 완공하면서 구도심을 찾는 이들이 증가했고,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 했던 목표도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반원형인 푸른길 브릿지를 원형으로 증축하겠다”며 “백운광장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횡단보도를 없애고 원형 로터리를 설치해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일자리 정책과 함께 사회 문제까지 해결하는 착한 경제의 밑거름도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장은 “송암산단 혁신지구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분야 그랜드 슬램 달성과 국가 및 지방산단단지 완성은 22만 주민 모두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고, 남구의 산업 경쟁력까지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 남구는 정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광주 남구 제공

5가지 유형 가운데 중심시가지형과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 4가지 사업을 추진했고 민선 8기 2년 차에 혁신지구 사업까지 챙기며 해당 분야의 5가지 사업을 모두 추진하는 유일한 기초단체라는 기록을 남겼다. 또 촌지역은 국가 및 지방산단 조성 공사가 마무리된 많은 기업이 들어왔고, 노후한 송암산단도 미래 차와 실감콘텐츠 중심의 산업단지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그는 “송암산단 및 국가-지방산단, 백운광장은 남구 경제를 이끄는 3대 중심축이다. 사람 중심의 경제는 주민 모두에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라며, “일자리와 혁신 경제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다비 체육센터를 비롯해 승촌파크골프장 36홀 확대, 가족사랑 나눔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개관,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조성 추진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대거 확충해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초로 천세 축하금을 지급하면서 효행을 장려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완전한 돌봄을 위해 ‘3-24H 안부확인 시스템’ 등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행정기관에서 보장하는 돌봄 정책도 역점을 뒀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민선 8기 남구의 변화·발전 여정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22만 주민의 삶을 책임지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민 모두에게 행복을 비롯해 보호를 받을 권리까지 완벽하게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강좌’ 남구, 19일까지 접수**

광주 남구가 오는 8월부터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강좌가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강좌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해당 강사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무료로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0명 이상의 주민 모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교육 소외계층 주민은 5인 이상으로도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강좌는 문화예술과 인문교양, 기초문해, 시민참여, 직업능력 등 7개 분야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강좌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평생학습도시 남구 홈페이지(ill.namgu.gwangju.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은 뒤 오는 19일까지 남구청 교육체육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박찬 기자

**착한공유센터 4호점 개소 서구, 상무역골드클래스 상가**

광주 서구는 10일 광주상무역골드클래스 상가 109호에 착한공유센터 4호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공유센터 4호점에는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수요가 많은 물품 100여개가 마련됐다.

공유공간은 △연령대별 장난감 등이 구비된 ‘키즈존’ △캠핑용품 등 취미용품들이 구비된 ‘청춘존’ △집들이 및 파티 용품들을 갖춘 ‘힐링존’으로 구성돼 있다.

또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입주특별존’도 마련해 이사박스, 이동용카트, 미세먼지 측정기 등 새집증후군 관련 용품, 창문용 로봇청소기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9시~오후6시이며 물품 대여신청은 사전에 유선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대여료는 평균 물품가액의 1~3%로 대여기간은 물품에 따라 최소 3일부터 7일까지, 1회 연장(7일)이 가능하다.

정상이 기자

**독서 토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광산구 운남어린이도서관 등**

광주 광산구는 운남어린이도서관, 이야기꽃도서관 2개 구립도서관에서 지역 아동·주민을 대상으로 토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운남어린이도서관은 오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초등학교 4~6학년이 다양한 토론 기법을 배우고, 실천 토론 활동을 할 수 있는 ‘디베이트(토론) 독서토론’을 진행한다.

이야기꽃도서관은 성인 대상 ‘디베이트 입문 교육’을 연다.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철 기자



광주 서구는 10일 광주상무역골드클래스 상가 109호에 착한공유센터 4호점을 개소했다.

광주 서구 제공

## 북구, 평두메습지 효율적 보전 위한 주민 토론회 개최

**11일 용봉동 행복어울림센터 북구의원·주민 등 80명 참여**

광주 북구가 광주 최초 탐사르습지로 등록된 무등산 평두메습지의 효율적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북구는 오늘(11일) 오전 9시30분 광주 북구 용봉동 행복어울림센터 2층 어울림 강당에서 평두메습지의 효율적 보전·이용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무등산 평두메습지가 지난 5월 광주 최초 탐사르습지에 등록됨에 따라 평두메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북구가 주최하고 △빛고을하천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

는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환경단체 관계자, 북구의회의원, 주민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두메습지 보호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선 부산대학교 교수(좌장) 주재로 서승오동아시아탐사르습지센터장의 ‘동아시아 탐사르습지 등록·운영 현황 및 정책제언’과 광복국 자연과사람들 대표의 ‘평두메습지 보호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발제로 토론이 시작된다.

이어서 김일권 광주연구원 박사,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생태보전위원장, 남동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이사, 공은주 무등산평촌명품마을 운영위원, 김도웅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이정환 북구 기후환경과장 등 6명의 대표 토론자가 ‘평두메습지 관련 의견 제안’을 하고 마지막으로 토론자간 자유논의와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북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습지의 체계적 관리, 자연생태 교육, 주민참여형 습지 보호 방안 등 다양한 평두메습지 활성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다양한 생물종 서식지인 평두메습지가 탐사르습지에 등록된 만큼 모두가 지혜를 모아 효율적인 보전과 활용방안을 도출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평두메습지 보전은 물론 평두메습지가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두메습지는 북구 화암동 530번지 일원에 있는 산지형 내륙습지로 786종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멸종위기종(4종) 서식지이자 양서류(8종) 번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난 5월 국제적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광주 최초이자 국내 26번째로 탐사르습지에 등재됐다. 윤준명 기자

**‘충장로 골목 여행’ 프로그램 동구,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광주 동구가 충장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충장 골목 여행’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 역사의 뿌리인 충장로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충장 골목 여행’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랜 세월을 광주 시민들과 함께해 온 충장로의 변화 양상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충장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충장 골목 여행’은 △추억의 골목 투어 △충장로 체험 투어(타임슬립) △충장로 야경 투어 △충장로 체험 투어(K-POP투어) 4개 테마별 코스로 운영될 계획이다.

테마별로 ‘추억의 골목 투어’는 충장로의 명소와 노포, 명인·명장들이 운영하는 오래된 가게를 마을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체험하는 시간이다. ‘충장로 체험 투어’는 개화기 등 시대에 따른 의상을 입고 사진작가와 동행하며 충장로 곳곳에서 인증샷 촬영이 가능하다.

‘충장로 야경 투어’는 충장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대표 야경명소를 사진작가와 함께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즐길 수 있다. ‘충장로 체험 투어’에서는 K-POP 거리를 중심으로 대중 음악 문화를 느끼고, 댄스 배우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충장 골목 여행’ 참여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무더운 날씨지만 충장 골목 여행이 충장로에 방문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 지역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충장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시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